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2호 【로체 제23054호】주체99(2010)년 4월 12일(월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여나가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주체의 가치높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기어이 실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

주체사상의 절대적전선성과 거대한 변혁적역할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뚜렷이 확증되었다. 주체사상의 가치높이 실천해왔기에 우리 혁명은 장구한 기간 사소한 우여곡절과 편향도 없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해왔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위업수행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적인 모범이 창조될 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틀어쥐고 실천으로 빛내어나가는데 우리 모든 리상을 꽃피우고 불멸의 강국을 건설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 역사적우승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긴 철의 진리이다.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최대의 충정이며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수령의 영생은 혁명사상의 영원한 생명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자 수령의 사상에 대한 충실성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청년이고 만년이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을 맹세하신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혁명가로 성장하였으며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값높은 삶을 누려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전사, 제자의 영예를 빛내어나가는 것보다 더 큰 긍지와 보람은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구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에는 천만군민을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옹호관찰자로 준비시켜 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장군님의 철석같은 의지가 깃들여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전진하여온 지난 10여년간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되어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정풍이 남김없이 파시된 긍지높은 로정이었다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어 세계적인 기적과 번영이 이룩된 영웅사 시작해왔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가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의 강성대국건설전선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사적전선의 계속이며 신군시대는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가 이룩되는 격동적인 시대이다.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어나가는 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의도하시던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님의 뜻과 령대로 우리 조국을 인민의 사회주의로 건설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빛내어나간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오고 해도 오직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을 영원히 자주의 경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주체사상은 가장 견결한 자주의 혁명사상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제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다. 주체사상의 가치높이 실천해왔기에 우리 인민은 민족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으로, 우리 조국은 자주의 강국, 사회주의의 보루로 위용될 수 있었다. 우리 혁명이 오늘과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있는 것은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이 앞길을 밝혀주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대강하기때문이다.

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자주의 신념이 강한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 주체사상을 사상정신적강성으로 받아안고 수십상강선과 시련을 제힘으로 헤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남의 손을 따르지 않는 힘의 바라는 일이 추후도 있을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가치높이 빛내어나가는 길에 주체사상을 꽃피우며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의 값높은 영예를 꽃피워 빛내어나갈 것이다.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어나가는 것은 우리 조국을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 꽃핀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세계에 떨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고 념원이었다. 한평생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서 삼고이고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주고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실천의 무기이며 민족번영의 천지대본이다. 주체사상에는 인민대중의 세기적리상이 반영되어있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오늘 우리 조국명운에는 주체사상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는 시대,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는 화려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충성과 백전백승의 정신력에 의하여 도처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사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지난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쏘아올리고 우리 조국의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여 세계야금계에 통상훈을 불렀으며 우리 나라가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쥔 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 현실은 주체사상의 가치따라 나아가는 길에 찬란한 광명당하며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도 이 길에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어 혁명적대오의 조별대오이 주체사상을 빛내어 나가는 길에 주체사상을 꽃피우며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의 값높은 영예를 꽃피워 빛내어나갈 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어나가는 수령님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역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도덕리의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최후의 결승한 령도자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철사상의 정당성이 실물도 명명백백히 확증되고 주체의 비발본이 16년만에 다시 꽃피어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되고 이 땅위에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신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창조되었다고 뜨겁게 땀을 흘리며 불멸불후의 강행군길을 이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심장속에 간직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결심은 끝없이 고귀하고 현실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제시하시는 과업들을 주체사상승리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내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식은 주체식이며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 우리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을 구현해나가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활짝 꽃피우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도 소나 생활풍조도 우리 내부에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의 위력, 강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사상적으로 발동된 군민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투쟁의 주제는 총화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실천으로 빛내어나가는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이념적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주체사상요양을 심화시켜 그들이 주체사상의 가치높이 백승을 펼치는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꽃피워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혁명의 승리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나 위대한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영예를 빛내이며 강성대국건설의 혁명마루에 걸출한 인재들이 비약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1일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쓰여진 프랑카드를 들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축전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혁명적애국정풍을 마련하고 주체문화예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어려있었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우리 근로자들을 문화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주시고 따뜻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그리워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띄여져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태양의 노래, 위인칭송의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우리 인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준비위원회 결성, 신문들 특집

태양절기념 스위스준비위원회가 3월 3일 바젤에서 결성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페르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불후의 고전적조작들을 널리 소개하며 다양한 정치문화화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가장 치열한 경쟁이었던 조선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사상적대결인 동시에 대인사명판단의 평군술을 검증하는 시험장이기도 하였다.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천만만 화는 김일성주석의 독특한 군사전략과 대담하고 평활한 작전으로 하여 미국은 수많은 병력과 군사장비를 가지고있었지만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고있다. 주석의 존함은 태양을 의미하는 데 태양의 속성인 빛과 열, 인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신 그이는 정령 태양과도 같은분이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역사의 새 시대, 지구시대를 펼쳐놓으셨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내팔신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특집하였다.

《리허씨》 3월 25일 부는 《김일성대원수》라는 표제 밑에 《전설적영웅》, 《강철의 령장》 등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위협을 반대하는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 도 조지령도하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었다.

일찍이 10대의 어린시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다지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시고 국가적위협도, 정국군의 지원도 없는 속에서 비범한 군사적재지와 지략, 맹활무쌍한 유격전법으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타소하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민족과 국적,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만민에게 따뜻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조선은 여러차례 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은 도이힐 경리의 너푸자가 루이그라핀처와 미군중교지도자 빌리 그라함목사는 그의를 신적존재로 높이 칭송하였다.

신문은 《군사의 영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위협을 반대하는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 도 조지령도하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었다.

신문은 글에서 전 프랑스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이 자신은 김일성주석과 만나보지 못한 특전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국가수반이시었고 위인들중의 한분이었다고 격찬한데 대하여, 전 일본부총장 가네마루 시이 기자회견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자신이 최대의 영웅을 표시하게 되는분으로 높이 칭송한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었지만 태양은 영원하다. 주석께서는 《태양의 집》으로 불리우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영생하게 되셨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와 더불어 영생할 것이다. 신문은 평양시경전사건을 함께 편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주체의 태양,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 힘차게 부르리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성대히 개막



【평양 4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주체의 태양이시며 사회주의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 하자! 《주체예술을 활짝 꽃피워 위인 사회의 주체사회주의에 적극 이바지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또한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 하자!》, 《주체예술을 활짝 꽃피워 위인 사회의 주체사회주의에 적극 이바지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무대뒤에서 축전마크와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전국전문가예술축전》, 《전국예술선진대국건설사》, 《전국기둥예술선진대국건설사》, 《전국근로자예술축전》 등 휘주악과 농악의 경쾌한 선율이 울리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는 궁정에 도약한 축전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이번 축전을 통하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성대히 기념하는데 이바지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날로 개화발전하는 선군시대 주체예술의 면모를 남김없이 파시할 열의가 넘쳐 있었다.

개막식장무대배경에 주체예술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력사적기록물이 펼쳐졌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리용이시신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개막식장에 나붙어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어려고 격정을 금치 못하였으며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도 주체예술의 정정기를 펼쳐주시고 근로인민을 창달은 예술의

에 의해 선군음악예술, 군중문화예술활동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 퍼져 온 나라에 전해졌는 혁명적열정과 대고조가상이 차넘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심, 김일성조선의 밝은 미래에 대한 막판이 출과 노래가 되어 펼쳐진 예술축전에 근 70개 단체의 전문예술인들과 해외 동포예술인들, 예술선진대, 기둥예술선진대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축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을 안고 마련한 예술작품들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대 빛내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천만군민의 굳은 의지를 파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이번 축전이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4월의 불멸불후의 영웅을 표명하면서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을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축전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 절세위인을 모신 한없는 민족적경외와 자부심이 태양송가가 되어 높이 울려 퍼질 뜻깊은 예술축전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신문자들은 이번 축전이 태양절을 성대히 기념하며 당창건 65돐을 조국평안과 빛날 일대 경사전을 마련해주시어 위인칭송의 노래를 천만대 부르려는 우리 인민의 열의를 풀어주시고 축전이 더욱 성대히 진행되도록 힘써주시고 개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선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러 개막공연이 있었다.

정론

강대한 조선의 힘을 보여 주라

희천의 언제에서 승리의 2012년을 내다보며

조선의 진군속도가 범상치 않다. 우주에 진입하는 위성의 다계단식도약과 같이 또 한단계 비약의 상승궤도에 불꽃 올라갔다. 요란한 번을 일으키며 그렇게도 세차게 두드러진 강성대국의 대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예제는 동해천리에 주체철과 날날의 쌍바가 날고 오르는 여겨 북방의 희천땅에 만복의 불빛을 뿌려줄 만년연방의 장공을 지휘하며 솟아오르고있다.

희천! 우리 얼마나 가슴을 뽐내며 너를 기다렸는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초전, 희망의 등대로 불리우는 이 영웅의 땅에서 일어나고있는 눈부신 속도와 기적은 우리가 2012년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마침내 강성대국의 대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새로운 비약에 들어섰다는것을 선언하는 승전포성이다.

지금 우리는 희천대전의 불붙는 전역에서 번개치는 속도, 화산분출같은 무진막강한 힘, 세계를 진감시키는 무비의 영웅기상을 보고있다.

1

희천의 기세가 대단하다. 한해전 이곳의 지형은 쉽게 찾아볼수 없고 한달전, 며칠전의 모습도 또 달라지고 있으며 여기에 서있는 이 시각도 거대한 창조물들은 급속도로 완성되어가고있다. 희천은 위대한 백두령을 따라 강성대국을 향하여 돌진하는 새 세기 조선의 상징이며 민족의 초속이다.

여기에 서보라. 그러면 우리 시대가 보이고 온 조국이 보이며 강성대국의 2012년이 보인다. 핵폭발력보다 더 거대한 희천의 힘의 분출은 원수들의 온갖 너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가소로움을 보여 주는 통쾌한 대담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위풍을 후려갈기는 호된 불벼락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전투적소위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을 벌이겠다. 그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하여 지금 온 나라를 활화산의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으며 우리 조국을 위대한 세기적변혁이 바야흐로 대동하는 격동적인 시대에 들어서고있습니다.》

모든의 상상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수도 없고 예측할수도 없는것이 바로 조선의 국력이며 지평적인경제의 무궁무진한 위력이다.

어디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인가. 언덕의 제부와 고도의 과학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해도 어려운 조건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이런 대공사를 해낼 용단을 감히 내릴수 없을것이다. 그것도 아마마한 대건설작전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어디서나 나라의 국력이 총집중, 총발동되고있는 때에 용을 쓰며 일어나는 희천의 현실은 참으로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수 없게 한다.

희천이 잘 나가야 한다. 희천이 일어나야 온 나라가 일어나고 희천에서 승리의 포성이 울려야 사회주의의 이 조선에 강성대국의 문명을 당당히 달수 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년동안에 무려 3번씩이나 희천을 찾으신가? 동무들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기본열의를 하고있다. 희천발진소건설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이라고도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강경정신이 창조된 자강당의 희천이 오늘은 강성대국의 첫 대문을 여는 조국의 최전선으로 되었다. 대개계화군단의 속력은 세네한 줄과 동을, 엄격한 자연도 말없이 수그러드는 병사들의 돌격의 기세, 불이 펼쳐 나게 여겨지거나 다져지고 치솟으며 벌어지는 통일과 희천의 언제터임장은 마치도 유명한 하나의 전역을 보는것만 같다.

희천시간은 전진시간이며 이 건설장의 1분1초는 번개치고 우뢰치고 폭풍치는 격동상태의 각일이다. 이 발명을 혁적으로 열여가는 물결같은 파급하게 육박하는 철의 흐름과 같고 천연의 수평과 칼베랑을 정정 휘감으며 길길이 뻗어간 저도로 도로들은 강성대국승리의 표고점을 향한 빛바치는 진군로와 같다.

희천은 우리 장군님의 최전선이고 희천

열풍은 장군님의 뜨거운 심장의 불길이다. 아버지수령님의 리상을 실현하고 휘황한 배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실 일념을 안고서고 잊을수 없는 3월의 그날 첫돌기의 포성을 울리시고 병사들과 희천에서 다시 만나자는 승리의 약속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는 철령을 넘어 최전방을 찾으신가? 오성산과 대덕산, 1211고지에 오르시듯 여기 희천을 찾으신가? 최고사령부의 작전도우에 승리의 화살표를 그려주시듯 희천대전의 명략과 전법을 하나하나 펼쳐주시며 전선의 병사들을 만나주시듯 천여명의 극한한 사랑과 믿음으로 희천의 용사들을 고무격려하신다.

최전선에서는 승리의 번개가 치고 요란한 포성이 울렸다.

희천전선에서는 승리의 번개가 치고 요란한 포성이 울렸다.

아버지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심장의 피를 뿜고 그이의 강행군발걸음에 보폭을 맞춘 우리의 용맹한 최전방전역의 영웅들은 강성대국을 향한 위대한 총진군속도를 창조하였다.

희천은 칠탄도 최첨단을 돌파했다. 대자연의 길들이고 세월과 시간을 휘어잡은 인간 창조력과 무한한 힘의 최고경지를 보여준 이곳 병사들과 건설자들은 우리 식의 최첨단기술공법들로 세계인제건설력사에 없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교과서를 썼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풍족한 시기에 10여년은 실의 걸려야 하는 공사를 단 3년동안에 해체한다는것이 어디 꿈이나 꿀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보라. 우리의 결사근위병들과 용감한 건설자들은 공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9개월이 되는 지난날까지 총공사량의 첫번째 기본목표를 훨씬 앞당겨 돌파했고 이제 3개월이 흐른 지금엔 벌써 절반전진을 눈앞에 두고있지 않는다.

조선과 세계를 안고 희천시간이 울렸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우주에 날아오르며 바로 그 다음날에 여기서 그 착공의 첫 포성이 울렸고 제2차 지하핵시험을 두고 세계반동들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몰아오던 때에 아슬한 협상중역을 걸어 내어 수백리 전선을 하나로 잇는 도양명도르게적전투가 맹렬히 벌어졌다.

용맹하고 전투력있는 내부군의 결사대들은 150일전투를 결속하면서 이마아마한 대연제의 기초공사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9월의 적전선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시고 《희천속도》의 창조자라는 최상의 영예를 받아안았다.

전진선의 매 목표가 동시에, 단번에 정면되는 대립체전이다.

배낭을 풀고 천막을 치면서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와 물길굴전투를 밀고나가는 것과 함께 길을 내고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한 살림집을 세웠다. 언제도 하와와 땅, 바다에서 공격하듯 바다와 중력, 정점에서 동시에 단번에 쌓아올리고 물길굴도 수십개의 작업장으로 단숨에 판공하는 공법을 들이대며 발전설비생산은 물론 완공된 즉시 총진할수 있는 철량들을 세울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고있다.

희천의 돌진은 시간과의 격박한 결사전이다. 이들은 하루를 24시간, 낮과 밤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분과 초로 쪼개고있다. 1분동안에 이 거창한 전선에 서 일어나는 공사실적만도 실로 기록적인 수이다.

희천사람들은 심장도 크다. 이들은 올해 안에 총공사량의 기본적인 파제들을 다해제할 초속도목표를 세웠다. 제일 힘들고 방대한 언제공사를 맡은 군인건설자들과 내부군병사들은 가까운 시일안에 모든 전투목표를 앞당겨 끝내게 되며 물길굴도 통의 첫 보고를 올린 최고사령관의 근위부대의 뒤를 이어 평양시와 황해남도,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풍산의 려단들을 비롯한 많은 돌격대들이 다음해 태양절까지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리게 된다.

속도는 국력의 결정체이며 상승과 비약의 척도이다.

백두령장의 최전선-희천에서 창조되고 있는 미증유의 마력과 초강도폭발력인 《희천속도》는 강성대국건설의 시간표이며 그것은 오늘의 총공격전에 새로운 기준, 새로운 공법, 새로운 리점표를 제시해주고있다.

실로 천리마에 우주속도를 가한 새 세기 조선의 시대상이며 무진막강하고 강력한 국력의 대폭발이다.

희천의 기적으로 세계와 말한다. 파연이 지구상에 이런 배정담대하고 슬기로운 민족이 있어본적이 있었으며 그 포부와 리상, 그 격렬성과 실현력이 있어서 이처럼 전대미문의 기적이 창조된 때가 있었는데.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해놓을수 없다.

천경만경으로 쌓인 시련속에서도 이런 불가능에 도전할수 있다면 그리고 미증유의 공격정신으로 천지개벽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면 그런 인민앞에는 하늘도 길을 내고 그 어떤 대적도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이 무한한 힘이라면 천길언제가 아니라 지구도 들어올릴수 있을것이며 이 눈부신 속도이면 우리의 비약과 후손대대의 번영을 환희롭게 상상해볼수 있을것이다.

2

희천의 힘은 인민의 힘이며 그것은 위대한 정신력의 승리이다.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운명은 억대의 재부나 그 어떤 경제력이 아니라 인민의 사상과 정신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구상에는 명도대국, 자원대국, 경제대국은 있어도 정신력의 대국이라고 부를만 한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우리 조국은 무진막강한 국력과 함께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진화 강한 나라이며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정신력을 민족의 기질로, 최고의 힘으로 소유한 제일 첫번째 강대국이다.

조선사람들이 어떤 인민이며 조선의 기개와 의지력이 얼마나 강간가를 세계에게 보여주는 희천대전은 피가 펼쳐 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사상과 신념의 결집지, 위대한 정신력의 대전경화화과 같다.

격정의 낮과 밤이 흐르는 이곳이, 불사신마냥 머리를 쳐들고 거역히 일어서는 저 천제가, 육탄으로 무겁게 내달리는 병사들과 돌격대원 그 한사람한사람이 다 말해주고있다.

동무들은 이 전투를 승리의 명마루에 공화국기발을 꽂는 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희천언제를 쌓고 있는 병사들의 위풍을 고무하시면서 이 부대는 그저 근위대가 아니라 결사대라고 말씀하시었다.

결사대! 이것이 희천사람들의 이름이다. 혁명적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희천의 정신력은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결사의 실천력과 불가능도 주저없이 파급하게 돌파하는 결사의 공격정신, 승리의 패밀을 향해 웃으며 달려는 불굴의 락관정신이다. 결사가 아니라 희천정신이 아니라 육탄 병사가 아니면 희천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희천대전의 첫 전투가 벌어졌던 아슬한 대립정점에 서있다. 지금은 넓은 도로가 굽이굽이 뻗어가고 하얀 안 돌격대원들은 여기서도 밀고있는 전투가 너무 격렬하여 신듯 발을 옮기지 못한다.

어느 하루도 멈출없이 억수로 쏟아진 폭우속에서 선재로 밤을 먹고 나무에 기대어 폭잠을 자면서도 돌격에 또 돌격을 연속 들이대고 기계수단이 불을수 없으며 몸이 바를을 매고 정력과 합마로 칼베랑을 짊어내어 3년이 넘도록 한다는 도로를 10일만에 닦아놓는 이들.

힘에 부친 바위들을 안고 걸음을 옮겨지지 않아 안락가운데 울던 애어린 돌격대원이며 깊은 밤 회돌을 켜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떨어지면 서로 부축하며 육탄으로 한치한치 길을 열어나간 결사대원들의 이야기들 듣는다면 세상에 이런 강한 인민이 또 어디 있으랴 하는 격경으로 눈물이 핑 돈다.

여기서는 진화 《전경》이 벌어지고있다. 강자와 약자, 진자와 가짜가 갈라지고 불속에서 강철이 단련되듯 오직 참된 충신, 진정한 애국가, 용감한 투사만이 단련을 헤치고 승자가 되는 엄숙하고 격렬한 전진이다.

이곳 병사들이 힘겨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하여 만들어낸 《극한점돌격전》이라는 말이 있다. 힘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 초인간적인 의지력을 폭발시켜 극한고비를 이겨낸다는 이 돌격전, 콩크리트라임에서 흐르는 땅에 몸뚱이를 누르며 다 된 병사들이 외곽 기세를 울리며 더 뜨겁게

일손을 다그치는 모습과 깊은 밤 불려오는 피로를 이겨내려고 서로 합성을 지르며 더 무겁게 내달리는 불사신의 군상을 보면 자신도 강해지고 그 불굴의 세계에 뛰어들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다.

하루밤사이 불이 번쩍나세운 백산의 《5시부터 5시까지 다리》, 최의의 마력으로 시간을 앞장기기 위해 기상천외한 공법을 도입한 통산려단의 《단번치기작업》, 잠간동인의 식사시간까지 아가와 온 대대가 전투장을 교대하면서 한다는 《이여달리기식사》... 사건에도 없는 이 말들은 결사란 무엇이든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놀라움으로 가슴이 막 벅차오르게 한다.

산악을 가르고 대하를 막으며 천변지를 일키는 희천의 결사공격정신은 파연이 어디에 뿌리박았는것이며 그것은 어떤 위대한 심장이 화산분출과 같은 기적의 힘을 폭발시키는것인가.

여기는 희천전선의 첫머리인 통일전역 건설장, -30℃의 강추위가 대지를 멍멍 얼두던 이혜병투에 첫 천지지도로 이곳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 오르신것은 차서 다시 내리시어 혁연 일기를 내뽐으며 일손을 다그치는 병사들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 달려봐 보시라고 병사들은 눈도 무릅쓰고 북받쳐 만세의 환호를 터뜨렸던 그 시간은 불과 몇분간이었다.

정과 사랑에 넘친 아버지의 손길과 심장의 열도가 뿜어올린 병사들의 뜨거운 입김! 오고간 한때의 맑은 없었다. 그러나 그 몇분간에 피보다 진하고 불보다 뜨거운 혈연의 정이 오가고 크나큰 믿음과 결사의 맹세가 얼마나 대하처럼 세차게 굽이쳤는가.

나는 입김을 날리면서 강추위도 아랑곳 없이 일하던 병사들의 모습과 나를 향해 만세의 합성을 웨치던 병사들에게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을 영연히 잊을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우리의 병사들은 왜이다.

그들의 발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계시었던 언제가 있고 우리의 머리우연 장군님 정혜수신 표고정이 있다!

병사가 되고싶은 땅, 병사가 이고사는 하늘, 그 모든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세계로 가득차있기에 병사들은 이 시각도 총성의 불을 안고 달린다.

사람들이여, 희천의 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가. 불꽃위는 온 하루의 돌격전에 힘이 지칠 때, 깊은 밤 건설의 동음만이 산정에 메아리쳐가고 저 하늘에 북두성이 반짝일 때면 병사들은 아버지장군님이 너무 그리워 이룰수 없는 격정에 휩싸인다. 힘들 때도, 기쁨 때도 장군님을 목매어 불러보는 그 마음의 쌓이고 쌓여 내우군의 3월 25일청년돌격대원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장군님! 그리는 시간》이라는 감동적인 전투일과를 정해놓았다.

하루 두번, 제일 힘들 때마다 30분씩 절름과 맞붙을 때면 그 모든가 하나같이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습부 달리를 하는 이들, 기다리던 그 시간이면 《장군님 뵈고싶습니다!》라는 격정의 합성을 웨치면서 저 멀리에서 손저어 부르는 그들의 장군님께로 달려가듯 전대로 승연한 강경에 가슴들며머리 돌격으로 나가는 모습은 눈물없이 볼수 없다.

바위를 천대로, 내리는 비를 승리의 꽃보라로 여겨면서 그리움의 결성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는 한 병사가 꺾은 수첩에 쓴 시 《소금맛》

병사의 성실한 더운 맘이 어려 옷자락에 피어난 소금꽃,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피고 어렵고 힘든 곳에만 더 아담하게 피어나는 꽃, 계절을 모르는 그 꽃의 뿌리는 말이라야, 그 땅은 그 땅은 장군님께로 달려가는 그리움의 불이여!

전장,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일떠선 비대한 조국의 격동상태를 보여주는 희천전역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병사들의 건설자들이 한마음이 되고 결사관철의 정신력으로 일치를 이룬 군민대단결의 정열한 시위장이다.

서해감포안 언변전발진소, 냉원발진소와 여러곳들을 비롯한 기념비적정적정소들의 정신력으로 일치를 이룬 군민대단결의 정열한 시위장이다.

서해감포안 언변전발진소, 냉원발진소와 여러곳들을 비롯한 기념비적정적정소들의 정신력으로 일치를 이룬 군민대단결의 정열한 시위장이다.

서해감포안 언변전발진소, 냉원발진소와 여러곳들을 비롯한 기념비적정적정소들의 정신력으로 일치를 이룬 군민대단결의 정열한 시위장이다.

3

2012년,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껏 달려온 속도에 또 박차를 가해 우리는 단숨에, 단번에 승리의 결승선에 다달아야 한다. 두드렸던 대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으며 몸집폭직한 사면들, 비약의 단숨에 굽이친 회을 갖는 중대한 국면들이 계속 펼쳐지고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리상이 시시각각, 분분초초 다가서며 펼쳐지는 이 책임적이고 긴박한 시각 우리에게는 더 높은 고조, 더 세한 양양, 더 빠른 질주가 필요하다.

모든 전선에서 《희천속도》를 창조하라! 누구나, 어디서나 시대의 이 요구로 심장의 피를 뿜어야 한다.

2012년까지는 우리가 달려야 할 직선속도이고 이 주를 번개같이 질주하는 조신의 마력, 조선의 본래가 바로 《희천속도》이다. 거창한 발전소를 3년안에 세우는것과 같이 온 나라가 그 속도, 그 시간으로 달린다면 강성대국의 대문을 더 빨리 앞당겨 열수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절절히 호소하시었다. 온 나라 희천의 기상, 《희천속도》로 강성대국승리의 결승주로를 따라 절름같이 내달려 력사적인 2010년을 대변혁의 해, 인민의 행복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꽃피어나는 변영의 해로 되게 해야 한다. ... 백두산악처럼 눈부신 백광을 뿌리며 우뚝우뚝 일떠서는 저 희천의 언제에 행복과 번영의 메루리언 동시에 조신아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라고 웨치는 진격의 나팔수와 같다.

강성대국시간표인 《희천속도》, 희천시간에 맞추어 온 조국이 일어나고 내달려야 한다.

한달만에 벼락치듯 승리의 상상봉에 도달할 우리 장군님의 불라는 심장의 초속, 이의 강행군발걸음소리가 희천의 초침소리와 더불어 천만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희천시간은 조선을 들어올리고 세계를 앞지른다. 누추를 나는 위성처럼, 만복이 파괴되는 비발란처럼 조신은 나날이 승승장구하며 우리의 돌진을 막아서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침몰하는 난파선마냥 괴물과 죽음을 치박하는 이 광명과 압축, 상공과 물력의 대세를 가슴후련하게 선언한다.

희천시간은 살자!

온 나라 모든 전선이 희천시간에 맞추어 내달릴 때 최첨단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힘의 세기로 단숨에 돌파할수 있으며 누구나 희천의 영웅들처럼 살 때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로 이 시대에 값높은 생의 자욱을 남길수 있다.

동무는 희천시간으로 살고있는가. 당이, 조국이, 시대가 우리를 때 인간에게 이렇게 묻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희천의 땅일선 전역과 다름없는 강성대국의 물길굴과파연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다 달려온 이곳은 조신의 초속이고 단결의 대군상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합한 길에 모신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태성할머니의 심정으로 굽이굽이 명령을 씌고 또 쓰는 사람들, 침수지역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자기들이 맡아 풀겠다는 살림집건설에 너도나도 달려나온 희천시간의 너머원들, 절세의 위인들의 발자취가 어리었던 곳의 사연같은 흙을 정히 담은 《흙주머니》들을 가보처럼 간직하고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화물자동차수리를 도맡아하면서 운전자들의 천누나로 사랑받는 통림의 군관안해, 장군님을 생각하는 그 진정성이 하나가 되는 온 가정에 펼쳐나오고 남편들을 따라 안해들이 달려오고 사랑도 리상도 여기서 쫓겨우자고 함께 온 3부자혁신자, 형제착암공, 부부돌격대원, 가정부인혁신자...

언제우에서, 땅속의 물길굴에서 군대와 인민이 노도와 같이 돌진해가는 이 기상, 위대한 명장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물결군민대단결의 시위인 이 강위력한 힘의 분출!

세계에 없는, 오직 우리만이 가지고있는 이 힘이 있기에 그 어떤 강적들과 맞서 전쟁을 한다 해도 조신은 반드시 이기며 대자연의 길들이고 최첨단요소를 점령하고 패일의 행복을 앞당겨온데서도 우리는 영원히 이길수밖에 없다.

벌어지고있으며 우리의 용감한 근위병들과 건설자들은 장군님을 위하여, 2012년을 위하여라고 웨치며 한결같은결음을 육탄으로 열고있다.

결사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의 천결을, 만결을 한결을 따라잡을수 있고 이제 남은 최후의 공격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었는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자!》, 희천의 내부군병사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으며 써붙인 이 구조의 정신이 또한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하다.

땅속의 물길굴과 대인공포수가 펼쳐질 언제말에 자기의 깨끗한 땅을 묻고있는 이들처럼 패일을 위한 오늘에 산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였는가를 후손들이 추억할수 있게, 무엇을 하나 일떠세워도 만년의 보충일이 될수 있게 최상의것으로 해놓아야 한다.

10여년을 3년으로 앞당기는 그 놀라운 속도로 어디서나 앞당길수 있는 모든것을 최대한 앞당기고 눈보라가 치는 폭우가 쏟아지는 폭풍 또 폭풍만을 이는 희천실업본체로 편속되라, 편속승세를 들이대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우리 식의 새공법들로 전제없는 속도를 창조하는 희천의 건설자처럼 누구나 기술혁신의 통마를 타야 한다.

동무여, 그대가 우리 장군님의 심장속에 세차게 불길처럼 흐르는 애국의 열정을 새겨안았다면, 그이의 강행군 자욱자욱을 신념과 망심으로 따르려거든 희천의 영웅들처럼 살라!

그대가 전기복이 넘치는 불야성의 거리, 2012년의 초속소리가 사무치게 그대다면, 변영의 대문이 열리는 광대한 승리를 정녕 맛보고싶다면 그리고 조선사회의 민족적자존심에 피가 끓어오르고 온갖 원수들의 발악적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여기 희천의 언제우에 오라. 단번에 앞을 막고 백백의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 비대한 각으로 극한점을 돌파해야 할 때, 폭발적인 힘으로 단숨에 요새를 점령해야 할 때 희천의 병사들을 생각해보라, 용감한 돌격대의 불라는 전장에 자신을 세워보라.

북부산악의 용장한 언제와 함께 강성대국의 해돋이가 환히 보인다.

정하다, 미답다. 희천의 영웅건설자들이여,

후날에도 조국과 후대들은 영원히 잊을수 없게.

절세의 애국가인 위대한 장군님의 시대에 살고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의 미더운 영웅들인 그대들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김일성강성대국의 성스러운 문명을 단 선구자로, 애국충신으로 불려우며 빛나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자기 자의자전과 후손대대의 기념비에 맺었이 써넣게 될것이다.

거세하게 돌진하는 정열한 희천전역의 위대한 대담, 가장 힘있는 표어인양 이 건설장의 언제말에는 병사들이 쓴 이런 글들이 불타고있을 터일것이다.

《수령님을 찾아가자!》

바로 이것이다. 산악도 가르고 세월도 휘어잡는 억센 심장들이 파연 무조건으로 하여 그처럼 세차게 불길처럼 세계를 진감하는 기적의 속도, 불굴의 정신력이 어디에서 용암처럼 터져올랐는가를 가슴이치는 글들이 다 말해주고있다.

온 조국이 이렇게 달려오고있다.

2012년 승리의 결승메를 끌고 속포가 달려오르는 경속광장에서 아버지수령님을 삼가 우러러 수령님! 우리는 강성대국의 문명을 달았습다라고 감격과 환희의 합성을 하늘같이 진감하게 터치게 될 그날을 향하여 폭풍처럼 달려오라.

아버지수령님을 찾아가는 길, 위대한 백두령장을 따라 천만군민이 행복의 상상봉으로 폭풍쳐나가는 우리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기다리라! 패일이여, 폭풍쳐 보라 세계여, 아침해 빛나는 동방의 아침이다 온 나라, 태양의 준함으로 빛나는 기쁨성조는 강대하고 위풍당당하며 풍요하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무릉도원,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빛나 솟아오르며 빛날것이며 우리의 후손대대는 이 땅에서 길이길이 무궁무진을 누르가게 될것이다.

동태 판, 고현 주



혁명사적품을 통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 선교련직공장에서 - 분사기자 김광혁 작음

함없이 인자하신 인민의 아버지

아이들의 단추문제

언제인가 점심식사를 끝낸 어느 한 기관의 일꾼들이 여담을 하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오시는 전화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전화 받는 일꾼에게 자신께서 오늘 거리를 돌아보느라 인민학교(당시) 아이들의 옷단추가 떨어졌으니 더러 보이는 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학생사업을 맡고있는 일꾼인 그는 곧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드리었다.

한동안 생각을 더듬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별한 아이들을 따로만 타일피는 안된다고, 가령 담임선생들과 소년단지도원들이 자기마한 단추를 하나를 하나씩 만들어서 교차서림에 넣어두었다가 단추떨어진 학생을 보면 제때에 달아주진 말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꾼은 아무 말씀도 올릴수 없었다. 그러지없이 인자하신 아버지에게 그만 목이 딱 막혔기때문이었다.

철부지의 생애도 받아주시며

어느해 가을 밤급 현직지도의 집에서 돌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 한 일꾼의 여섯살 잡힌 아이가 낮에 자기가 잠은 물고기에 대해 자랑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제백에 데려다 돌보아주시는 생애에

드러 식사시간에 그가 잠은 물고기가 음식그릇에 담겨 싹타우에 올랐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막내가 갑자기 왕- 울음을 터뜨렸기때문이었다. 울음의 리유인 즉 자기가 잠은 물고기를 도막내어 로리를 하나씩 크기를 가늠할수 없게 되어서였다. 누나와 형이 번갈아가며 달레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 녀석보통때문에 아닌걸라고 하시며 어서 큰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시었다. 그러고는 손수 물고기토막을 모아 순서대로 붙여놓으시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싹타 밑에 들어가 우는 면에게 손수놓을 해보이시며 떼어냈다고, 물고기가 도막 붙은데 어서 나오라고, 정말 물고기가 크구나라고 더없이 인자하시어 애조를 달래시었다.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싹타

밑에서 기여나온 때군은 자기 잠은 물고기가 제 모양, 제크기대로 놓여있는것을 보고

애기들의

어느해 8월 12일이었다. 지방의 한 직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학이소를 꼭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공장락아소를 찾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갖던애기들의 방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젖먹을 시간이 되어서인지 애기들이 여간 보채지 않았다. (이걸 어찌나. 수령님께서 애기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가셔야 하였는데...)

급해난 보육원은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우는 애기들이 자기의맛인것만 같아 그의 마애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었다.

보육원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은 기뻐도 울고 좋아도 싫어도

히웃 웃는것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도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직업》

울며 잠이 와도 운다고 하시며 그의 마음을 늦추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모든 북육원에게 애기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는가고 물으시었다.

뜻밖의 질문이어서 북육원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런 북육원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 애기들은 우는게 직업이라고 호방히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꼼꼼히 음미해보면 북육원은 너무도 신중하여 《어쩌면...》하고 탄성을 울리었다.

이 세상 그 어느 어머니도, 그 어느 북육원도 알지 못한 애기들의 직업도 아버지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것이다.

분사기자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

세계사회계는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을 창시하시어 진보적인 인류가 나아가길 길을 활히 밝혀 주시고 우리 나라를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로씨야의 한 사회계인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회고할 때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것은 그이께서 주제사상을 창시하시고 구현해나가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라는 사상이 바로 주제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제사상을 창시하시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완벽하게 밝히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수평으로 되신 주요한 근거의 하나가 주제사상을 창시하신데 있다.》

인류력사에 혁명의 지도 사상을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유와 해방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을 이끈 수령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용은 사상은 인민대중의 력사적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지 못했으므로 하여 제한성을 가지었다.

뛰어난 탐구력과 천리해안의 예지, 과학적철학을 천공으로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그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인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가 나아가길 길을 활히 밝혀주실수 있었다.

에질트 미스트라아프사회주의 당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께서는 새시기를 이어가며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인들로부터 영원한 호모를 받고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이는 불멸의 사상과 업적으로 하여 영생하는분이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께서는 주제사상과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위업실현의 불멸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셨다. 그이께서 주제사상과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으로써 인류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그이는 20세기의 결출한 정치원로이시며 특출한 위인상이기에 하여 영생하는분이다. 그이는 또한 결출한 혁명가, 한없이 고결한 인간이시다. 그이의 모습은 세계 진보적인인들의 마음속에 반체투쟁을 불러는 나라와 민족들에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숭고한 국제주의자의 귀감으로 빛나고 있다.》

력사에는 이름난 철학자, 사상리론가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

처럼 만민의 경모와 칭송을 받고 계시는 사상리론의 거장을 력사는 알지 못한다.

우리 나라에 찾아와 금수산 기념공전을 방문한 방글라데쉬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집전을 만민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절세위인에 대한 끝없는 호모심을 표시하였다. 그는 자주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신다고 하면서 방문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제사상을 창시하시어 진보적인인류가 나아가길 앞길을 밝혀주시었다. 지금도 나의 귀견에는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활동에서 전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시던 그이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그이의 말씀을 나는 한생의 지침으로 간직하고 있다.》

얼마전 자주적발전을 위한 프랑스지식인연구협회 결성식이 이루어 진행되었다. 결성식에서 협회위원장인 유럽지역 주제사상연구회 리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인류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참다운 길을 찾아오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발전공부화시키시는 주제사상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유럽의 자주화와 나아가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프랑스의 지식인들도 주제사상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광범한 사람들에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부터 자주적발전을 위한 프랑스지식인연구협회를 결성하게 된다. 앞으로 협회에 더 많은 지식인들을 망라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진보적인인류는 새 세기에 들어와 날로 더욱 약화해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살해동족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자주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고수하며 강성대국건설투쟁에서 놀라운 기적과 번혁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벽한 현실에서 위대한 주제사상의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그들은 주제사상에 기초한 선군정치적 위력으로 적들의 반공화국공작을 짓발하여버려 주제혁명위업완성의 길로 한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을 목격하면서 주제사상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지도사상, 필승의 기치이라고 격찬하고 있다.

주제사상연구회구 조 사무국장 오기미 경이께서는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진보적인 사상은 주제사상이다. 주제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투쟁해온 조선인민의 력사와 경험은 주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고 있다.》

주제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어 주제사상의 불패의 힘을 세계에 보여 주셨으며 주제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었다. 주제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반체제투쟁을 위한 진보적인인류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주제사상은 오늘날 보편적인 사상으로 세계에 급속히 퍼지고있다.》

세계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시대와 인류에게 남기신 주제사상이라는 고귀한 유산은 세상에 이름 남긴 력대 위인들의 모든 유산을 다 합친대도 견줄수 없는 최상최대의 유산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연예인이 영국군인 《에이쉬언 타임즈》 정치주필은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룩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세계인류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 후손만대 길이 전할 최상최대의 유산이다.》라고 말하였다.

세상사람들이 높이 칭송하듯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은 그 과학성과 진리성,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오늘날 대일도 진보적인인류가 역사에 기록되고나아가 할 인류해방의 위대한 기치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

라 병 성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회고모임

중국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 투쟁연고자가족들의 회고모임이 8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स्थ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모라》를 감상하였다.

모임에서는 항일혁명투사 리재도의 아들 우영, 항일혁명렬사 장을화의 딸 장금옥, 항일혁명투쟁연고자 풍중운의 딸 풍영라, 항일혁명투쟁연고자 상원선생의 딸 상가란, 항일혁명투쟁연고자 류현홍의 딸 류소희가 발언하였다.

그들은 조선 인민은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라고 하면서 1912년 바로 이날

부터 주체의 길, 선군의 길로 나아가는 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의 수평으로서의 품모와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시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인도하시어 시대와 인류앞에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고 20세기 결출한 정치원로와 빛나는 보석을 보여주셨다고 칭송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중조친선을 위해 불멸의 업적을 쌓으셨으며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 함께 싸운 전우들의 후대들인 자기들에게 친어머니사랑을 아낌없이 돌려 주시었고 그들은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김일성주석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면서 주석께서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자기들모든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늘날 자기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며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인 명도법에 우리 인민이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선별들이 맺어준 중조친선의 계승자로서 중조친선을 영원히 빛내어나가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중조친선은 대를 이어 전해질것이다》

중국 《인민일보》의 글

신문은 류홍제일행이 이곳에 자기들이 정중스럽게 가지고온 두그루의 측백나무를 심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렇게 썼다.

류홍제는 이 두그루의 측백나무는 지난날을 사모에 대한 우리의 추억의 정을 표시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원군렬사들은 중국인민의 훌륭한 아들딸인뿐 아니라 조선인민의 훌륭한 아들딸이다.

그들은 조선인민과 어깨걸고 함께 싸웠으며 자기의 귀중한

《인민일보》의 글

신문은 류홍제일행이 이곳에 자기들이 정중스럽게 가지고온 두그루의 측백나무를 심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렇게 썼다.

류홍제는 이 두그루의 측백나무는 지난날을 사모에 대한 우리의 추억의 정을 표시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원군렬사들은 중국인민의 훌륭한 아들딸인뿐 아니라 조선인민의 훌륭한 아들딸이다.

그들은 조선인민과 어깨걸고 함께 싸웠으며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

우리가 오늘 그들을 추억하는것은 중조 두 나라 인민이 피로써 맺은 친선을 대대손손 전해가기 위해서이다.

신문은 계속하여 올해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이 기념일을 계기로 중조 두 나라가 평화를 제일 귀중하게 하는 나라들이라는것을 세계인민들에게 보여줄때 대대적으로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담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평양 4월 11일발 조선 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고 관하여 조선중앙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담을 9일과 10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외무성 대변인이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는 6차회담, 1.19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나 생물무기 조성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공약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모퉁이 말하며 조선은 최담태세검토가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고 규탄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조선을 핵불사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면서 이것은 조선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위협을 일삼아온 부위행정부초기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달라진점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선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조선은 책임있는 핵무기보유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왔다고 말하였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의 변함없는 목표이라고 하면서 대변인은 미국이 빈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이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조선은 언제든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만큼 더 늘이고 현대화해결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미국의 AP통신,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 《아사히신문》은 조선이 미국에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만큼 더 늘이고 현대화해결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하면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담의 요지를 보도하였다.

미국의 침략책동에 경고

이란과 함동함모장이 8일 한 통신사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분별한 침략책동을 규탄하였다.

최근 미국이 핵무기를 구실로 이란에 대한 압력과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만일 미군이

자 연 교 해

●베루의 후아누프주에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6일 현재 사망자수는 28명, 부상자수는 54명으로 늘어났으며 42명만이 행방 불명이였다. 또한 20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었다 한다.

●인도네시아의 아베주에서 7일 리히터척도가 7.2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씨나방시로부터 동남쪽으로 7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지진으로 6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00여채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파괴되었으며 주민지역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필리핀에서 올해 들어 엘니뇨현상으로 가을이 계속되어

합 조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가 7일 에네르기, 식량안전, 무역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때 대한 8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들은 우루과이대통령의 베네수엘라방문과정에 조인되었다.

수에즈운하운영성과 에질트에서 3월에 수에즈운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이 그 전달에 비해 13.5% 더 늘어났다.

8일 윤하당국이 이에 대해

아 세 안 수 너 자 회 의 진 행

【평양 4월 11일발 조선 중앙통신】 제 16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수뇌자회의가 8일과 9일 필리핀의 하노이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아세안स्थ원국 국가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합 조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가 7일 에네르기, 식량안전, 무역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때 대한 8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들은 우루과이대통령의 베네수엘라방문과정에 조인되었다.

수에즈운하운영성과 에질트에서 3월에 수에즈운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이 그 전달에 비해 13.5% 더 늘어났다.

8일 윤하당국이 이에 대해

파 약

최근 튀르키예경찰당국은 조사자로를 발표하여 지난 두달 반동안에 이스탄불에서 사망한 약 21의 마약이 압수되고 451명의 범죄자들이 붙잡혔

범 죄

5편 튀르키예의 완주에서 한편 튀르키예가 드러나 60kg의 헤로인과 61kg의 하위쉬가 압수되고 6명의

마약관련범죄자들이 체포되었다

이보다 앞서 2일과 3일 완주와 아그주에서 106kg의 헤로인이 적발, 압수되었다 한다.

본사기자



침략외세해력책동에 내부처럴하여

특히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분별외해책동을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국의 침략책동을 들이켜볼 때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책정은 무장간섭으로 비루무장간섭으로, 로골적인 방식으로부터 은밀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왔다고 할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필요에 따라 그런 방식들을 배합하거나 엮어무어 적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다른

나라에 정권교체를 강요하고 친미세력의 집권을 막후조종하는것은 미국이 100여년동안 실시해온 침략외세해력책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한 기사는 자기의 저서에서 미국의 《100여년 정복사》를 분석하면서 하와이를 병합한것으로부터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권교체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분별외해책동은 국제적규범배격과 파관을 먼저 못하였었다.

얼마전 중국외무부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정권자 자국의 라바에 대해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를 만났는데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견결히 반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중국의 립장을 진지하게 대하고 부정적 영향을 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분별외해책동에 대한 지지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이인민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쿠비에 찾아간 미국대사단은 이 나라의 반정부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부추기는 추태를 지켰다. 이에 대해 쿠비의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관리들이 아바나주재 미국의공관의 집에 수십명의 앞잡이들을 불러들인대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성명은 이러한 밀담은 미국이 《협조》보다는 《반혁명》을 지지하고 정부전복을 선동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을 다시금 드러내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내부분별외해책동은 이란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척당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이란정부는 미국의 후원을 받던 쿠제자이머방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나라 사법기관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이란의 이슬람교 제도를 와해시키기 위해 반정부구르망들을 추동하여 그러한 망들을 내이고 그들을 통하여 자국의 과학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반정부요소를 선동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지난 3월 이란이슬람교혁명 지도자는 한 회담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교활한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앞에서는 이란교도의 《판계정사》를 운운하면서 또 들어앉아서 이란인민을 분열시켜 내란을 일으키려고 획책하고있다고 까밝히고 하지만 미국의 비열한 책동은 실재를 먼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베네수엘라대통령은 델레비존방연설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미국의 분별외해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콜롬비아에 전개된 미군사기지를 지역나라들의 《단결에 상처를 입히는 비수》라고 확언하였다. 그는 미국이 알바와 남아메리카 국가동맹을 공격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동세력들을 계속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그러한 행동은 결코 알바의 발전을 가로막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이 미국의 로골화하는 내부분별외해책동을 제도권부, 선군교체를 그런 유희한 술책으로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 《적대국》들에 대한 악랄한 내부분별외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릴수 있도록 강요해 대응해나가는 이 나라들의 움직임을 더욱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나라 사법기관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이란의 이슬람교 제도를 와해시키기 위해 반정부구르망들을 추동하여 그러한 망들을 내이고 그들을 통하여 자국의 과학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반정부요소를 선동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지난 3월 이란이슬람교혁명 지도자는 한 회담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교활한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앞에서는 이란교도의 《판계정사》를 운운하면서 또 들어앉아서 이란인민을 분열시켜 내란을 일으키려고 획책하고있다고 까밝히고 하지만 미국의 비열한 책동은 실재를 먼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베네수엘라대통령은 델레비존방연설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미국의 분별외해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콜롬비아에 전개된 미군사기지를 지역나라들의 《단결에 상처를 입히는 비수》라고 확언하였다. 그는 미국이 알바와 남아메리카 국가동맹을 공격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동세력들을 계속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그러한 행동은 결코 알바의 발전을 가로막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이 미국의 로골화하는 내부분별외해책동을 제도권부, 선군교체를 그런 유희한 술책으로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 《적대국》들에 대한 악랄한 내부분별외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릴수 있도록 강요해 대응해나가는 이 나라들의 움직임을 더욱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파산의 운명에 처한 일본의 우익보수패당

수십년동안 권력을 틀어쥐고 일본의 정치를 파우지해온 우익보수집단인 자민당이 여당으로 부터 야당으로 전락된지 1년도 못되였다. 큰집이 기울어 저도 삼년 간다는 말이 있지만 반세기이상의 력사를 가지고 일본정치주역에서 제노바라고 시대는 자민당이 너무도 빨리 파산의 운명에 처하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지난 3일 자민당의 요사노 가오루 전 제무성이 당내에서 다니가키 총재를 만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다. 총재와의 회담 이후 요사노는 기자들에게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패일이 될다》고 하면서 자기의 탈당리유를 설명하였다. 그는 새 당결성의향을 표명하면서 이미전에 당을 결성하려는 의향을 표시한바는 무수속 히라누마 다케오 전 경제산업성,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었던 후지다카오 전 운수상과도 회담을 가지고 신당결성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에 요사노가 자민당탈당을 결심하고 여러 정객들과 신당결성에 대해 논의한것은 우연치않다.

올해 초였다 자민당내에서는 정치과동이 지난 시기보다 더 강도높게 있었다. 《정치결전의 해》로 되었던 지난해에 수십십년동안 유지해온 정권을 폐문

자민당내에서 울려나오고있는 불협화음은 이뿐이 아니다.

자민당내에서 울려나오고있는 불협화음은 이뿐이 아니다. 정부조사부 회장과 외교부 회장 등은 총재에게 소장파들로 《다음기 내각》을 조직할것을 제의하였다. 자민당속속 여러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수 있었는지 의문시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민당 총재 다니가키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내 인사개혁문제에 관해 거론하고 선언하였다. 그의 견해는 당내 여러 파벌들의 요구와 주장에 굴복하는 형태로 인사개혁문제가 손을 내민 오히려 자민당에 대한 지지들을 저하시키게 된다는것이다. 《다음기 내각》 조직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스스로가 지난해 가을에 걸 토하였지만 《민주주의 총재 내보았지만 되돌아가는》이라고 간주하고 보류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중앙에서의 집단 싸움은 절대금지이라느니, 신당결성같은것이 없도록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되다니 워니 하면서 강경집과 변명이 뒤섞인 소리를 하였다.

최근 자민당의 참의원장장은 TBS TV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올해 여름의 참의원선거에서 의석수를 더욱 늘이겠노라고 제법 웅변력을 폈다. 하지만 권력을 매우고 민심의 비침을 받으며 마가를 가랑

일본의 우익보수패당

자민당내에서 울려나오고있는 불협화음은 이뿐이 아니다. 정부조사부 회장과 외교부 회장 등은 총재에게 소장파들로 《다음기 내각》을 조직할것을 제의하였다. 자민당속속 여러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수 있었는지 의문시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민당 총재 다니가키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내 인사개혁문제에 관해 거론하고 선언하였다. 그의 견해는 당내 여러 파벌들의 요구와 주장에 굴복하는 형태로 인사개혁문제가 손을 내민 오히려 자민당에 대한 지지들을 저하시키게 된다는것이다. 《다음기 내각》 조직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스스로가 지난해 가을에 걸 토하였지만 《민주주의 총재 내보았지만 되돌아가는》이라고 간주하고 보류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중앙에서의 집단 싸움은 절대금지이라느니, 신당결성같은것이 없도록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되다니 워니 하면서 강경집과 변명이 뒤섞인 소리를 하였다.

최근 자민당의 참의원장장은 TBS TV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올해 여름의 참의원선거에서 의석수를 더욱 늘이겠노라고 제법 웅변력을 폈다. 하지만 권력을 매우고 민심의 비침을 받으며 마가를 가랑

일본의 우익보수패당

자민당내에서 울려나오고있는 불협화음은 이뿐이 아니다. 정부조사부 회장과 외교부 회장 등은 총재에게 소장파들로 《다음기 내각》을 조직할것을 제의하였다. 자민당속속 여러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수 있었는지 의문시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민당 총재 다니가키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내 인사개혁문제에 관해 거론하고 선언하였다. 그의 견해는 당내 여러 파벌들의 요구와 주장에 굴복하는 형태로 인사개혁문제가 손을 내민 오히려 자민당에 대한 지지들을 저하시키게 된다는것이다. 《다음기 내각》 조직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스스로가 지난해 가을에 걸 토하였지만 《민주주의 총재 내보았지만 되돌아가는》이라고 간주하고 보류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중앙에서의 집단 싸움은 절대금지이라느니, 신당결성같은것이 없도록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되다니 워니 하면서 강경집과 변명이 뒤섞인 소리를 하였다.

최근 자민당의 참의원장장은 TBS TV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올해 여름의 참의원선거에서 의석수를 더욱 늘이겠노라고 제법 웅변력을 폈다. 하지만 권력을 매우고 민심의 비침을 받으며 마가를 가랑

본사기자